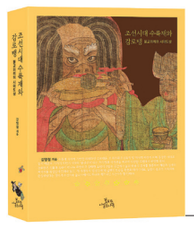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9~4/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 아헹가/현천 역 | 선요가 | 6 | 앙굿따라니까야(1)숫자별로모은경 | 대림 스님 옮김 | 초기불전연구원 |
| 2 | 부처님의생애(종단본) | 교육원 편찬위 | 조계종출판사 | 7 |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 김성철 | 오타쿠 |
| 3 | 무비스님의천수경(개정판) | 무비 스님 지음 | 조계종출판사 | 8 | 불교적심신의학과생명윤리 | 김성철 | 오타쿠 |
| 4 |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 사라스와띠 | 한국요가출판사 | 9 | 인생수업(잘물든단풍은봄꽃보다아름답다) | 법륜/유근택 그림 | 휴 |
| 5 | 조선시대수륙재와감로탱:불교의례의시대도상 | 강영철 | 꽃피는아몬드나무 | 10 | 예수재의범 | 해사 편찬 | 운주사 |

책세상

# ‘감로탱’에 담긴 중생구제 실천적 세계관



조선시대 수륙재와 감로탱 – 불교의례의 시대도상
강영철 지음
꽃피는 아몬드나무 / 4만8천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선시대 수륙재와 감로탱〉은  조선시대 불교의례의 꽃인 불교미술을 의례사적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접근한 보기 드문 학술서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학술서임에도 대중적인 인문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수륙재 현장을 십여 년 동안 실제 참여한 불교미술사학자인 강영철 저자는 수륙재의 대중성에 주목했다. 대승사상에 입각한 조선시대 수륙재 의식집의 다양한 판본들에서 재의 성격과 개념들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의식절차와 동선들을 실질적으로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불교문화와의 접목을 위해 깊고 다양한 여러 방식의 접근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것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대재였던 수륙재의 의식용 탱화라 할 수 있는 감로탱의 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 ‘참여와 관찰’ 관점을 통해 새로운 측면의 연구대상으로 이를 풀어냈다.

〈조선시대 수륙재와 감로탱〉은 조선시대 불교문화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번성했던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와 허응당(虛應堂) 보우(普雨, 1509~1565)의 중흥불사 시기와 이후 그 영향을 받은 시기를 중심으로 사찰에서 행해졌던 왕실 ‘영혼식(迎魂式)’과 ‘재(齋) 형식의 제사’, 명절인 불교 사명일(四名日; 설, 단오, 추석, 백중)의 ‘수륙재(水陸齋)’를 각종 자료와 수륙재 의식집의 판본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다뤘다. 이 과정에서 수륙재의 의례화(議禮畵)인 감로탱이 어떻게 등장했는지와 그 전개과정을 조선후기까지 확대해 살펴보면서 감로탱에 그려진 다양하고 흥미로운 시대 도상들도 분석해 풀어냈다.

조선시대 사찰에서 행해진 왕실의 ‘재(齋) 형식의 제사’는 조선왕조실록 등에 나타나는 제한된 자료가 대부분이다. 〈조선시대 수륙재와 감로탱〉에서 다루고 있는 허응당 보우의 〈중종인종양대왕급선왕선후영혼식(中宗仁宗兩大王及先王先后迎魂式)〉은 수륙재의 독립된 하단 의례문으로 왕실의 기신재(忌晨齋)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이지만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실제 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감로탱〉(18세기)의 ‘초란이’(좌) ‘소리꾼’(우).

저자는 당시 서당의 학동들이 읽던 〈당음(唐音)〉의 싯구인 ‘馬上逢寒食途中(마상봉한식도중)’이라 쓰인 부채를 들고 사설 풀고 있는 장면을 분석했다. 저자는 이것을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흥부가 판소리 도상으로 보고 있다.

‘재(齋) 형식의 제사’를 위해 왕실에서는 구체적인 의식절차를 공유하며 향사香使)를 파견하고 공양물을 올렸는데 이때에 당시 재에서 통용되던 영가를 위한 밥인 ‘영반(靈飯)’ 대신에 임금의 밥인 ‘수라(水刺)’와 제주도의 겨울 진상품인 ‘귤’까지 올렸던 기록이 전하는 등 조선시대 왕실 천도재 연구의 외연확대에 크게 반영될 연구 성과가 담겨있 다.

또한 당대의 수륙재와 우란분재[백중]와의 영향관계를 교학과 신앙에 의거해 체계적으로 분석했으며 고승들의 의식집 편찬을 비롯해 어산의 이력까지 추적해 이 시기의 기본적인 어산사(魚山史)를 처음으로 복원해냈다.

조선시대 고승들 가운데는 특이하게도 수륙재 의식집을 편찬하고 어산 이력을 가진 이들이 등장한다. 이 책은 근대의 어산(魚山) 계보 연구범주 경향에 벗어나 16세기와 18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시대 초기 어산사(魚山史)에 대해 처음으로 다룬 연구 성과물이다. 조선시대 양대 계보인 ‘청허계(淸虛系)’와 ‘부휴계(浮休系)’ 중 청허계의 서산(西山) 문중이 이를 이끈 것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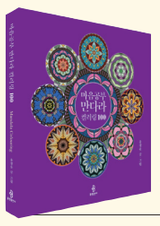
〈조선시대 수륙재와 감로탱〉의 또 다른 특징은 감로탱에 반영된 다양한 시대 도상을 새롭게 밝힌 것에 있다. 수륙재와 우란분재[백중]의 영향관계를 다루면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감로탱〉(18세기)의 면연귀왕 도상이 불교의 그릇인 발우가 아닌 민간의 ‘대나무 소쿠리’를 왜 들고 있는지 밝혀내고 있을 뿐만아니라 〈리움 소장 감로탱〉(18세기)에서는 상모 벙거지에 탈을 쓴 초란이가 세시(歲時)에 ‘고사반(告祀盤)’을 행하고 있는 장면을 풀어냈고, 〈용주사 감로탱〉(1790)에서는 흰쌀이 소복한 ‘고사반’을 마치 오랜 풍속화를 보는 것처럼 풀어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감로탱〉(18세기)에서는 방정맞은 ‘초란이’를 비롯해 갓에 장구를 치는 ‘소리꾼’이 당시 서당의 학동들이 읽던 〈당음(唐音)〉의 싯구인 ‘馬上逢寒食途中(마상봉한식도중)’이라 쓰인 부채를 들고 사설 풀고 있는 장면을 분석했는데, 이것을 저자는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흥부가 판소리 도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도상 풀이는 저자가 감로탱을 보는 관점과 관찰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한줄 소개**

조선시대 수륙재를 중심으로 한 각종 문헌자료들과 이와 연계된 감로탱의 체계적인 도상 분석을 통해 대승사상의 의례화(議禮化)와 중생구제의 실천적 세계관을조명하고 불교미술사와 불교민속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힌 연구서.

# 100가지 만다라 색칠하니 ‘마음공부’ 저절로

다양한 감정 나오는 만다라에 ‘나’ 맡기면
여유로움 함께 조화로움도 배울 수 있어



마음공부 만다라 컬러링 100
용정운 글 · 그림
불광출판사 펴냄/ 1만8천원

만다라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중심’, ‘근원’, ‘원’을 뜻한다. 만다라는 옛날부터 성스러움, 완전함, 일체, 우주를 상징하거나 삶의 지속성, 순환성을 의미한다고 여겨져 왔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종교적 의미를 담아 수행의 한 방법으로 만다라 그리기를 활용했다.

현재의 만다라 그리기에는 종교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이 바탕이 된 심리치유의 한 방법으로 활



기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여유로움과 함께 할 수 있는 조화로움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만다라 컬러링이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만 집중돼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컬러링’ 활동을 즐기고, 이를 취미로 삼아보고자 하는 사람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도안이 골고루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100가지 도안 가운데에는 섬세하거나 화려한 도안도 있지만 간단하고 단순한 도안도 있다. 그래서 컬러링을 여러 번 해본 숙련자는 물론이고, 컬러링이 익숙하지 않다 해도 컬러링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특정한 문양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만다라에는 ‘대칭성’과 ‘균형미’가 있다. 이러한 만다라 자체의 아름다움은 컬러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채색하든 상관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게 해준다.

저자가 매일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그려내었기 때문에 도안 가운데에는 우리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들도 숨어 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해나 꽃, 나뭇잎 같은 자연물이나 선풍기, 피자, 콩 등 사물을 소재로 한 만다라 도안을 보면서 숨어 있는 모티프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이를 통해 만다라 컬러링이 결코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활동이 아님을, 만다라 컬러링을 하는 시간은 그저 즐기면 되는 시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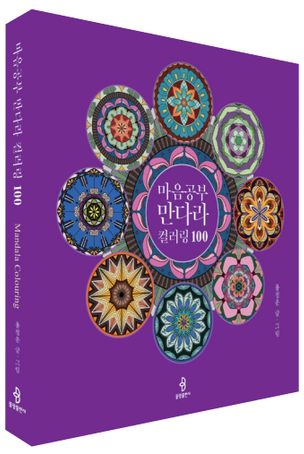
용정운 작가는 “규칙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그리는 건 심리적인 안정감과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면서 “만다라 그리기는 작가에게 있어 최고의 명상법이자 생활이고, 휴식의 시간이었다. 깨어남의 기적을 선물한 만다라는 선물이고 사랑이다”고 자신의 책을 소개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100가지 만다라를 색칠하면서 비워내고 채우는 내 마음

명상 카툰 작가이자 명상 수행자인 저자가 마음공부를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그려낸 100가지 만다라 도안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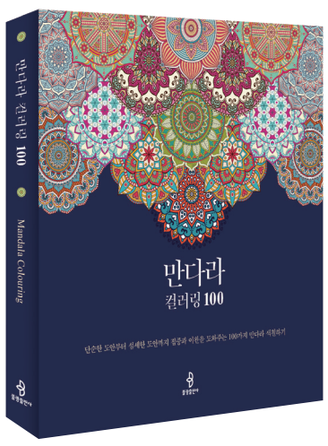


마음공부 만다라 컬러링 100
용정운 글·그림
144쪽 | 양장 | 올컬러

‘지금’에 집중하고 휴식을 도와주는 100가지 만다라 색칠하기

만다라 컬러링 분야 대표 스테디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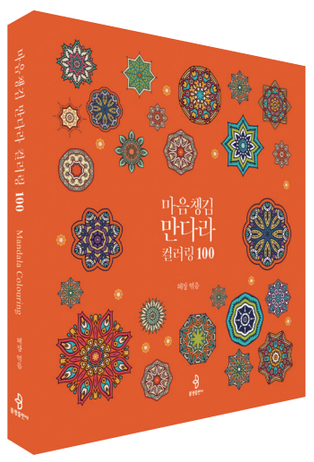
100가지 다양한 만다라를 색칠하며 누리는 집중과 이완의 시간



만다라 컬러링 100
편집부 엮음
128쪽 | 양장

컬러링의 즐거움과 함께, 마음챙김이 주는 평온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컬러링북

전통적인 만다라와 만다라를 응용한 도안, 그리고 문살과 단청 등을 소재로 한 한국 전통 문양까지 다양한 난이도, 다양한 형태의 100가지 도안 수록 !



마음챙김 만다라 컬러링 100
혜장 엮음
132쪽 | 양장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홈페이지 www.bulkwang.co.kr